당신은 소중한 존재

시편 139 편

2020 년 7 월 19 일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 폰 안에, 생일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생일이 되며는 축하 텍스팅이나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은혜 가운데 만나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불교의 인연설을 들먹이지 않고도,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연락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하해야 합니다. 축하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일 축하 인사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 좋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일 카드 안에 보니까, 이런 문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소중한 것 처럼 오늘 특별히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I wish your birthday is as special as you are.”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참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가요? 소중한가요? 그저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의 한 사람, 정확히 78 억의 세상 사람들 중의 한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생명 아닙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요. 가만히 돌아보면 잘 난 것이 없습니다. 잘 난 것은 커녕, 잘 못 한 것만 가득합니다. 또 하는 것만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과 같이, 아니 남들처럼, 내 세울 것도 없고, 또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어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요.”

또 남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 넌 변변치 못한 놈이야. 뭐 제대로 갖춘 것이 없지 않은가?” 이 말에, 스스로, “나는 실패자입니다. 쓸모없는 인간,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쌀만 축내는 사람” 이라고 자책합니다.

실수 투성이고, 과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약점도 너무 많아요. 못 생겼어요.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너무 커요. 나이가 들었어요. 게다가, 병도 들고, 이제 다 살았습니다.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사람이 바로 나야” 이라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자책하고, 질책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창조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의 참 가치를 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실물 예화로 이 진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지갑에서 100 불짜리 지폐를 꺼내서, 이 돈을 그냥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잘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께서, 100 불짜리 지폐를 손으로 서너번 심하게 꾸겨서 작게 공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 돈 이렇게 꾸겨졌는데도, 가지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이번에서는 바닥에 지폐를 놓고, 발로 서너번 밟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었는데도, 가지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후에, 설명하기를, “교우님이, 이 지폐가 꾸겨지고, 더러워지고, 밝힘을 당했어도, 이 지폐의 가치가 변함이 없음을 알고, 가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것임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우님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우님이 실패를 하고, 꾸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어도, 능력이 없고, 필요없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한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우님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교우님의 가치를 표시는 표시판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달려 표시가 없는 가격표입니다. 왜냐하면 달려로 돈으로 매길 수 없이 귀중하고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그 표에는, “돈으로 매길 수 없음” “Priceless”

오늘 시편 139 편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베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시편 139 편 13 절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생명체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조물하셨습니다. 친히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얼굴이 많이 비슷했습니다만, 제 쌍둥이 동생하고 저하고는 얼굴 뿐만이 아니라, 지문도 그렇고 다릅니다.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사용할 때에, 미리 입력한 패스워드를 넣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패스워드 말고, 지문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컴퓨터를 아무도 사용을 못합니다. 제 손가락을 버튼에 올려 놓아야지 열립니다. 참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에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을, 놀랍고 신기하게 조물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 장 5 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우.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의 오묘한 관계입니다. 조물하시기 전에, 나를 당신의 마음에 두셨다는 말씀이십니다.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조씨 가정으로 보내시기 전에 저를 아셨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씨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온 생명체이라고 밝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는 대단히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높히어, 세상 만방에 선언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평범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 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체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모태 전에 짓기 전에 아시고 계셨던,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오래 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인종 차별이 사회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스템인 레이스짐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우월합니까? 누가 열등합니까? 누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차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생명체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선포합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특별한 생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 장 27 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에는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알려 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저는 어릴 적 부터, 건정이 제 동생하고 참 닮았다고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일학년때 같은 반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놀리는 바람에, 초등학교 2 학년부터 각각 딴 반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닮은 우리들은 놀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 혼과 육이 있는 생명체로,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성품이 담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백인, 흑인, 라틴계 히스패닉, 미 원주민, 아시아계 사람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앞에, 쌍둥이들입니다. 서로 닮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창조함 받은 모두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았으니, 우리 인간들이 서로 닮은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인도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에, 두 손을 모으고, “나마스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며는, “내가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안부를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나마스떼의 진짜 의미는, “내 안의 계신 신이 당신 안에 계신 신을 알아채립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함으로 서로가 한 마음이고, 서로가 하나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생명체들이니,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습, 성품을 찾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16 절) 우리는 살림을 받은 생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짐과 죄짐과 죽음의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짐에 눌러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사는 생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자유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6 장 19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전 6:19) ..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 받고, 용납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시간, 재물, 재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특히, 우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가난한 이웃들과 소외받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켈란제로의 다윗 조각품 아시죠? 이탈리아 플로렌스, 피렌체에 세워져 있습니다. 17 피트 높이, 5 미터가 넘는 높이의 큰 조각상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켈란제रो가 북부 이태리에서 25 년전에 캔, 큰 대리석을 가지고 다윗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제रो가 만들기 전에, 두명의 조각가들이, (디 듀치오 로세리노) 조각을 시도를 했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의 질이 좋지 않아서요.

그런데 미켈란제로의 손이 닿으면서, 작품이 될 가능성이 없이 형편없는 저질 대리석에서, 그 유명한 다윗 상이 나온 것입니다. 미켈란제로는, 재질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들여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어머니 뱃 속에서 지음 받기 전 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을 담은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어, 죄와 죽음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유한 자로 영생의 삶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정의 그리고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여러분이 특별하고 귀한 것 처럼, 특별하고 귀한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소중한 걸작품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담대함으로 힘차게 믿음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